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적 불안이 야기하는 개인적
불안의 상징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장 유 진

사회적 불안이 야기하는 개인적
불안의 상징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장 유 진

인 준 서

장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이 2017년부터 작업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본인은 '사회적 불안 속에 사는 개인'에 주목하고 작품을 통해 개인의 불안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고 집단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있어 사회의 외부적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사회는 안전, 범죄, 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본인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심리적 혼란을 겪었다.

본인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 받는 개인의 심리, 그 중에서도 불안에 주목하였다. 불안은 작품에서 반복과 원형의 공간, 재질적 표현 형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의 형식에 대해 본인은 칼 구스타브 융의 상징 이론에서 자연적 상징과 문화적 상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2017년에 작업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대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사회로부터 받은 무의식적 영향을 칼 구스타브 융의 분석심리학과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견해를 통해 서술하였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불안의 개념을 통해 본인의 불안을 서술하여 작품 형성배경을 설명하였다. 둘째, 본인 작품에 보여 지는 구멍 형태의 공간, 반복적 패턴, 재질을 통해 불안에 대한 작품표현방법을 나타내었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미디어를 통해 확장되는 사회적 불안	3
2) 사회와 개인의 무의식적 연결	5
3) 불안의 상징	8
2. 작품 표현 방법	10
1) 반복과 상징을 통한 불안의 표현	10
2) 원형의 공간	13
3) 재질에 대입한 불안정성	16
3. 작품분석	19
III. 결론	3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검은 새가 지나간다,
단 채널 영상 1분 32초, 가변 설치, 2017-2018 19
- 【작품 2】 Nightmare,
단 채널 영상 1분 53초, 가변 설치, 2017-2018 21
- 【작품 3】 깊이와 얕음,
한지, 석분 점토, 혼합 매체, 가변 설치, 2018 24
- 【작품 4】 가려진 모습,
전신거울, 아크릴 페인트 마카, 156 x 40(cm), 2018 27
- 【작품 5】 기억노트_그렇게 쓰여진 것들,
종이에 프린트, 21.5 x 29.5(cm) 가변설치, 2016-2018 29
- 【작품 6】 영구불변,
한지, 혼합매체, 가변 설치, 2018 31
- 【작품 7】 불안전모,
한지, 혼합매체, 23 x 28 x 16(cm), 2018 34

I. 서론

현대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환경, 그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다가오는 4차 혁명으로 인해 불안해지는 일자리와 실업률 등의 문제들이 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칼 구스타브 융은 우리의 정신은 그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심리는 발전단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가 개인의 내면에 쌓여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라 하였다. 그의 저서 『유동하는 공포』에서 바우만은 우리의 삶 어느 곳이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¹⁾ 거리, 텔레비전, 침실, 일터, 지하철, 사람 등 접촉하는 모든 것에 공포가 숨어있다고 말한 그는 공포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주장은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불안의 모습이였다. 즉, 바우만의 견해는 우리의 일상은 공포와 밀접해있고 공포는 결국 개인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만이 이야기하는 일상과 밀접한 공포 중 미디어 매체를 통해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는 본인에게 더욱 밀접하게 다가오게 되었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내면의 불안을 담은 기록과 영상매체, 설치로 구성된 본인 작품의 상징적 표현을 칼 구스타브 융의 상징 이론을 통해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1)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사, 2009, p.15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 배경, 표현방법, 작품분석으로 연구를 하였다.

첫째, 지그문트 바우만과 칼 구스타브 융이 말하는 공포와 불안, 집단무의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본 논문에서 다룬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의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을 통해 불안의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본인의 작품에서 다루는 반복적 패턴, 새와 구멍의 상징, 재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작품의 의미와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미디어를 통해 확장되는 사회적 불안

본인에게 있어 불안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불필요한 시선에 대한 의식과 여러 감정 소모는 본인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때로는 고립을 유발하고 불안에 이르게 한다. 본인의 불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 범죄, 재해, 안전사고 같은 사회적 상황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욱 야기 시키며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 위협을 준다.

미디어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접촉만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여 지는 사회적 불안에 많이 노출되면서, 본인의 불안은 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사회적인 상황이 불안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현상이 불리일으키는 직간접적인 위협에 대해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라 하였으며, 유동하는 공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에서 불안은 세 가지 위협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위협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회질서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의 위협, 마지막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협이 있다.²⁾ 바우만이 말하는 위협은 우리 사회에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보여 진다.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한 세월호 사고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통한 공감과 예측할 수 없는 생존,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를 자크 아탈리는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타이타닉>은 우리다. 거들먹대는, 제 잘난 듯한, 눈 뜬 장님인, 위선에 가득 찬 우리 사회다. 불쌍한 구성원들에게 냉혹한 사회, 모든 것이 예측되지만, 예측의 수단만큼은 예측되지 않는 사회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앞에 빙산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와 충돌하고, 우리를 장엄한 음악 소리와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힐 것이다.³⁾

자크 아탈리의 비유와 같이 과거에 잠재되어 있던 위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갑작스러우면서도 갑작스럽지 않은 이러한 위험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혹은 언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게 숨어있다.

본인은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는 사회적 위험이 본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졌다. 『유동하는 공포』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공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시대를 놓고 갖게 되는 두려운 생각들 중 하나는 확실성과 안전성, 보안성이 크게 상실된 상황이 결코 짧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공포는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할 수 있다. 각각 다른 사회적 배경, 성, 연령을 가진

2)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사, 2009, p.14

3)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앞의 책, p.27

사람들은 각각 다른 공포에 얽매어 있는데, 또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포도 있다. 이 지구의 어디에서 태어났든, 인간은 그런 공포를 지니고 태어나거나, 선택하거나, 선택을 강요당한다.⁴⁾

이러한 공포는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스며든다.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해지는 공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개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무의식에 내재된 불안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개인이 가진 공포와 불안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간다. 결국 자신의 눈앞에 불안과 공포가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든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만든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것을 ‘파생적 공포’라 하였다.⁵⁾ 이러한 파생적 공포는 앞에서 이야기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된 것으로서, 파생적 공포로 인한 개인의 무력감은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변화하려는 많은 시도와 목소리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이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와 개인의 무의식적 연결성

본인이 관찰한 현대 사회는 변화와 발전이 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불안감 또한 증가하였다. 불안감은 발전하는 미디어 매체로 인해 우리에게 쉽고 빠르게 노출되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은 사람들을 한편으로 무더지게 만들었다. 또한

4)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사, 2009, p.40

5)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앞의 책, p.13

시대의 변화만큼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 과거의 잘못된 의식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무관심은 사회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인재들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있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와 개인의 내면 속 불안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했다.

불안이 내재된 개인의 내면인격에 대해 융의 제자 중 한명인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꿈을 통해 나타난 자기 인격의 한 측면을 ‘그림자의 자각’⁶⁾이라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개인의 의식적 인격보다 훨씬 더 집단적인 감염에 약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혼자서는 문제없이 지내다가도,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거나 반응하면 거기에 동조하게 될 때가 있고,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 즉, 개인은 집단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융의 분석심리학의 중심 개념인 집단무의식은 인류 이전의 선행 인류로부터 전해지는 원시적 이미지로 구성된 잠재적 이미지의 저장고로, 개인에게 내재되어 세계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소질 및 경향성이다.⁷⁾ 다시 말하면 집단무의식은 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습득되어 온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행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집단무의식을 유발하는 주요매체로 미디어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론으로 융의 집단무의식과 유사한 견해를 가진 라캉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무의식이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판단과 주체의 경험이 반영된다. ‘사건 이후’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이나 인상 또는 기억이 사후의 경험들에 의해 그 의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라캉의 무의식은 사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위와 같은 융과 라캉의 이론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 안에는 이미

6)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263

7)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사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와 개인의 무의식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무의식 속에 공존하는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개인과 충돌을 반복한다. 충돌을 일으키는 외부와 내면의 이질감은 스스로를 괴리감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외부의 영향들은 여전히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들은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에 대해 칼 구스타브 융은 일시적으로 불명확해져 버린 생각이나 인상, 이미지가 겹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인상, 이미지는 분명히 잊어버렸는데도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불명확한 의식적 마음은 무의식에 내재되어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상징들로 이루어진 꿈에 대해 융은 꿈의 일부는 집단 무의식에서 파생된 상징이라 보았다. 이것은 인류 공통의 심리적인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 마음의 일부이다. 이러한 상징은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오래되고 낯선 존재라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도, 수용되지도 못한다고 말한다.⁹⁾ 이처럼 꿈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보여 진다. 이러한 꿈이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지만 본인은 꿈이 주변 환경과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본인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꿈의 상징들을 통해 내면의 무의식을 알아내려 하였다. 이를 위해 꿈의 다양한 상징적 현상을 기록 하였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품에 상징적 표현방식을 사용했다.

8) 이영하, 최광현, 「라캉의 상징 체계 해석방법론에 기초한 동물상징체계연구」, 『청소년시설 환경』 제15권 제4호, 한국 청소년시설환경 학회, 2017, p.34

9)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156

3) 불안의 상징

본인의 작품에 상징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불안은 꿈속에 등장하는 무의식적 상징들과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상징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러한 상징은 융의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에 나타나는 상징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융은 상징을 자연적 상징과 문화적 상징으로 구분한다. 자연적 상징은 마음의 무의식적인 내용들에서 나온 것으로 원형심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나는 상징이 그러하다. 반면 문화적 상징은 오랫동안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 문명사회가 받아드릴 만한 보편적 이미지를 가진 상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은 정서적 자극을 받으며 편견 같은 것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적 상징은 우리의 정신 구조에 중요한 요소이면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융의 자연적 상징은 본인의 작품에서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연관된다. 그 이유는 융은 꿈에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과학적 이해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 세계는 점점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연 현상은 서서히 상징으로서의 은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천둥은 더 이상 진노한 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번개는 웅정의 화살이 아니다. 강에는 강의 정령이 없고, 나무는 인간 생명의 원리가 아니고, 뱀은 지혜의 화신이 아니며, 산속 동굴은 괴물이 사는 집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교류는 사라져 버렸다. 그 와 동시에 그 상징적인 결합에서 생겨나던 심오한 정서적 에너지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꿈의 상징이다.¹⁰⁾

10)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p.138-139

이렇듯 꿈은 자연적 상징을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연적 상징과 연관된 본인 작품에서의 대표적인 상징 이미지로 구멍이 있다. 작품에서 구멍은 본인의 불안한 내면 안의 무의식을 나타낸다. 구멍은 대체로 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융은 원을 정신의 상징이라 하였다. 이처럼 본인 작품의 정신적 상징인 구멍은 꿈을 통해 모티브가 되었다. 꿈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던, 혹은 의식하고 싶지 않았던 본능과 불안함이 나타난다. 꿈속에 나타나는 불안의 모습은 현실에서 불안을 통해 나타나던 신체적 증상과 닮아 있었다.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을 김춘택은 「일상생활의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불안한 감정을 적당히 처리하지 못하면 불안 장애로 진전될 수 있다. 이는 불면증, 감정 폭발, 격앙, 심계항진(두근거림), 죽음, 정신이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불안은 좀 더 급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구역질, 잦은 소변, 설사, 숨이 막히는 느낌, 발한, 가쁜 호흡, 동공 확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¹¹⁾ 본인은 이러한 불안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구멍의 이미지로 치환해 작품에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눈이 확장되듯 구멍 형태가 커지거나 감정이 폭발하듯 구멍의 수가 많아진다.

융이 말하는 문화적 상징은 인류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말한다. 이러한 상징이 나타난 배경을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인은 기나긴 인류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획득된 온갖 특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비한 혼합물이다. 인간 내부에는 회의적 성격과 과학적 확신이 낡은 편견, 시대착오적인 사고나 감정의 버릇, 완고한 오해, 무식함 등이 있다.”¹²⁾ 이러한 배경을 통해 나타난 문화적 상징은 본인의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11) 김춘택, 「일상생활의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23권 제1호, 한국복지행정학회, 2013, p.25

12)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140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문화적 상징으로는 새의 이미지가 있다. 새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고대에 이어 현대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나타나기도 한다. 고대와 현대에 나타난 새의 상징에 대해 융의 제자인 조지프 L. 헨더슨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고대에 해방 및 자유의 상징인 들새는 오늘날의 제트기나 우주 로켓과도 비슷하다. 제트기나 우주 로켓 역시 중력에서 일시적으로 탈출한다는 초월의 원리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렇듯 고대의 상징성은 현대에 이르러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뿐 그 의미와 상징은 고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류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문화적 상징이 본인의 작품에서 새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새는 사회적인 불안의 의미를 상징한다. 새가 불안의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었던 경우는 영화나 역사, 신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 중 신화 속 새의 상징을 살펴보면 신화 속에 상상의 새들은 태양승배와 빛과 창조, 죽음과 저승의 개념을 가진다.¹⁴⁾ 신화 속에서의 새의 의미처럼 본인 작품에 나타나는 새는 희망과 절망을 가진 이중적 의미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이러한 새의 이중적 의미는 불안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불안 자체를 상징 한다.

2. 작품 표현 방법

1) 반복과 상징을 통한 불안의 표현

본인은 작품에 불안을 상징화한 형상과 불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13)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앞의 책, p.242

14) 김중순, 「한국문화원류의 해명을 위한 문화적 기호로서 ‘새’의 상징」, 『한국학논집』 제 5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p.210

상황을 반복적 패턴으로 나타냈다. 본인은 불안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고 자신만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상징적 기호는 시대를 거쳐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상징적 형태 이전에 불안은 이미 그 자체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본질이다. 그리고 불안은 대중적인 현상으로 현대 사회에 퍼져있다 생각했다. 불안의 대중적 현상에 대한 표현은 작품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작품 【가려진 모습】 과 【검은 새가 지나간다】 , 【영구불변】 , 【기억 노트_그렇게 쓰여진 것들】 이 있다.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반복이다. 본인은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내면의 상황과 과거를 반복하는 현재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현상이 바로 불안이었다.

첫 번째, 【가려진 모습】 은 반복적 선의 패턴을 통해 불안의 감정을 표현했다. 전신 거울 위에 불규칙적으로 그어진 검은 선은 본인 안에 내재된 여러 불안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안정 되지 않은 내면은 사회적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마치 안개 낀 시야를 통해 보듯 거울 위에 반복적으로 그어진 검은 선들 사이로 비춰지는 본인의 모습은 불안함에 잠식된 본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신 거울 위에 검은 아크릴 페인트 마카로 불규칙적으로 그어진 선들은 본인의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담았다. 그리고 이것은 전시장에 세워져 본인뿐만 아니라 거울 앞에 서있는 그 누구라도 불안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두 번째, 【검은 새가 지나간다】 와 【영구불변】 은 반복적 움직임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표현했다. 사회와 개인의 일상은 죽음이 있기 전까지 반복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도 변화는 이루어지지만 본인은 현 사회가 여전히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영구불변】이다. 피비우스의 띠처럼 과거를 답습하는 현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빛으로 표현한 【영구불변】은 터널 형태로 타원형의 모양으로 전시장에 희미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시계반대방향으로 돈다. 타원형의 터널은 과거와 현재가 같은 선상에 있으며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해서 도는 푸른빛은 불안의 이중적인 모습인 희망과 절망을 모두 보여주며 그 자체로 불안정함을 상징한다.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것은 현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과거를 역행하여 고여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에 나타나는 빛의 상징은 과거에 시대와 역사, 종교를 초월하여 ‘희망’이라는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희망을 지향하는 빛은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세계를 비추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정신을 구현하게 하는 성찰적 공간을 만들어낸다.¹⁵⁾ 작품 속의 빛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불안을 반복적 표현을 통해 나타낸 다른 작품으로는 【검은 새가 지나간다】가 있다. 위의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퍼져가는 불안의 전염성,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새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시장의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영상 속 날아다니는 검은 새들은 공포와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작품처럼 반복성이 많이 나타나는 작가 예서의 작업을 보면 동물, 새, 물고기들을 반복적으로 대칭 배열하여 일정 단위로 반복되는 패턴 구도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이 보이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평면적인 패턴과 명확한 3차원적 질감 사이의 모호한 시각적 환영을 통해 현실은 긍정되는 동시에 부정되며 객관화되는 동시에

15) 강정하, 「제임스 터렐의 작품에 나타난 ‘빛’의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2, p.38

상대화됨을 그의 작품들은 확연히 보여준다.¹⁶⁾ 그의 작품들 중 <폭포(Waterfall)>(1961)에서 보여 지는 끊임없이 흐르는 폭포의 물은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 물은 물레방아 바퀴를 움직여 영원한 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⁷⁾ 이러한 그의 작품은 본인 작품 중 【영구불변】에서 보여 지는 반복과 닮아있다.

위의 본인 작품들의 토대가 된 【기억 노트_그렇게 쓰여진 것들】은 2016년부터 에세이 형식으로 써온 글들이다. 용은 “자기의 꿈을 꾸준히 주목한 사람은 그 꿈이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관심을 자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이는 곧 자기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낸다.”¹⁸⁾라고 말한다. 용이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일상적 경험과 감정, 꿈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사회와 본인은 상징의 원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불안의 감정이다. 작품의 글을 감정적 순간마다 기록해온 만큼 본인의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2) 원형의 공간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 형태의 구멍은 그림자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의식을 상징한다. 이러한 원형 공간에 대해 용은 “기묘한 통로, 방, 지하실의 잠기지 않은 입구 따위로 이루어진 미로는 지하 세계를 표현하는 고대 이집트의 표상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무의식과 그 미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 상징은 개인이 무의식의 그림자 영역에서 그 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며, 왠지 무섭고 이질적인 요소가 언제든지 그의 내부로 침입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⁹⁾라고 말한다.

16) 조선미, 「평면조형에 나타난 게슈탈트 지각심리적 관점의 표현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E.C.Escher)의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 p.43

17) 조선미, 앞의 논문, p.49

18)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351

본인은 작품에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무의식을 통해 연결시켜 나타냈다. 작품에서 무의식의 공간은 구멍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멍을 반복, 확장, 표면화 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정신을 감싸고 있는 신체에는 구멍이 존재한다. 그것은 안과 밖을 이어주며 흡수와 배출의 기능을 한다. 만약 구멍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죽음과 다를 것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능처럼 작품에서 구멍의 형태는 불안을 흡수, 배출하는 의미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구멍의 형태로 무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는 【검은 새가 지나간다】와 【Nightmare】 , 【깊이와 얕음】 이 있다. 첫 번째, 【검은 새가 지나간다】 는 사회 속 불안이 본인의 주변에 보이지 않게 떠다니며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서 나온 영상 작품이다. 본인은 불안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회 안에 퍼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의식 안에서 사회적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모습을 구멍을 통해 표현했다. 불안은 검은 새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원형의 구멍 사이로 검은 새가 움직인다. 원형의 구멍은 바이러스가 복제되어 증식 하듯 많아진다. 많아진 구멍 사이로 검은 새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구멍은 점점 화면을 가득 메우고 검은 새들의 움직임은 온전하게 모두 보이게 된다. 검은 새들은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화면을 가득 메운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검은 새들은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불안한 상황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구멍의 다른 표현 방법으로 【Nightmare】 는 사회적 상황과 무의식이 혼합되어 꿈의 이미지로 상징화된 시공간을 표현한 영상 작품이다. 본인의 꿈과 현실을 결합해 만든 것으로, 이야기의 각각의 조각들은 【기억 노트_그렇게 쓰여진 것들】 을 모티브로 경험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은 상징적 형태로 영상에 등장한다. 본인은 현실에서 겪은

19) 박수애, 송관재,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제11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5, p.5

자유에 대한 억압, 방황하는 상황을 꿈의 이미지로 변환해 표현했다. 영상은 스톱모션 기법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이야기는 창문이 구멍으로 확장되어 화면을 뒤덮으며 영상이 시작된다. 영상 속 구멍은 현실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로 표현된다.

또한 영상에는 새와 사람이 혼합되어 등장하는데 옛날 동굴 벽화 가운데 동물로 가장한 반인 반수 그림이 있었다. 그 벽화에는 반인 반수 인간과 동물이 나란히 그려진 것도 있었다. 프랑스의 트루아 프레르 동굴에는 한 인간이 동물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마치 동물에게 주술을 걸듯 피리를 불고 있는 그림과 사슴뿔과 말 머리, 곰 앞발이 달린 인간이 춤을 추는 그림도 있었다고 한다. 융은 “동물이란 주제는 대체로 인간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성질을 상징한다.”²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작품 속 구멍 안에 보여지는 새와 사람의 혼합된 모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본능 중 하나인 불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세 번째로, 【Nightmare】 작품에서 나오게 된 【깊이와 얕음】은 두개의 형상이 합쳐져 설치된 작품으로 사회에서의 본인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형상과 설치로 표현했다. 사회에 보여지는 본인의 모습, 그리고 외면과는 다른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적 본인을 나타냈다. 두개의 형상 중 하나인 새의 형상은 내면에 잠재된 본인으로, 본인조차 자신의 내면 깊이와 존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생각했다. 그래서 새 형상의 표면에 마치 구멍이 뚫려 밑바닥이 보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드로잉을 그렸다. 누워있는 모습의 새의 몸 위에 그려진 구멍 안쪽에는 작은 형태의 사람이 그려져 있다. 누워있는 새는 본인의 내면 안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면의 공간 안에는 자신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무의식 저편의 내면이 있음을 새의 표면에 그려진 드로잉을 통해 표현했다.

20)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381

작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원은 융의 이론을 통해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융과 그의 제자들이 쓴 『인간과 상징』에서 보면 원은 인간과 자연 전체와의 관계까지 포괄하면서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마음의 전체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원의 상징은 원시적 태양 숭배나 근대 종교, 신화나 꿈, 티베트 승려가 그린 만다라나 심지어는 도시 계획도에서도 발견되고, 또 먼 옛날 천문학자가 생각했던 구체 개념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원의 상징은 언제나 생명이 지닌 유일한 지상 측면, 즉 생명의 궁극적인 전체성을 표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²¹⁾ 이와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 원은 내면과 정신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무의식의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작가로 ‘박광수’ 작가가 있다. 칼럼니스트 강승민에 의하면 작품 <좀 더 어두운 숲(Deeper Forest)>이나 <검은 숲속(Dark Forest)> 과 같은 시리즈에서, 작가는 숲을 무의식이 자리 잡은 공간으로 가정한다. 숲을 무의식의 공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제어되지 않은 불확정성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빼곡하게 검은 선으로 채워진 박광수 작가의 숲은, 미지 생물의 원초적인 생명력이 꿈틀대는 장소처럼 보인다. 검은 잉크와 아크릴로 덮인 숲은 꿈과 현실의 경계이고, 이성의 영역 이전의 무의식이 자리 잡은 공간이다.²²⁾ 이와 같이 박광수 작가가 무의식의 공간을 숲에 비유해 작품에 표현한 것처럼 본인은 원형의 공간, 구멍을 무의식의 공간으로 표현했다.

3) 재질에 대입한 불안정성

작품에 불안정한 심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질을 통한

21)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p.385

22) 네이버 ‘헬로!아티스트’, ‘박광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356524&cid=59154&categoryId=59154>)

표현이 있다. 본인은 재료의 물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다르게 물성을 강화시켜 작품에 표현한 작가로 ‘변상환’ 작가가 있다. 그를 인터뷰한 문화예술기자 김희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돌>시리즈 작업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가구를 주위와 새롭게 만든다거나, 상하거나 변하기 쉬운 소재들을 시멘트로 캐스팅(주물)해 화석처럼 불변의 존재로 치환했다. 그가 사는 창신동 골목의 돌덩어리들은 한 컷의 사진으로 재조명해 ‘창신동’ 역사의 산물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그의 작업을 통해 잊힐 뻔했던 그 물건에 담긴 각각의 의미와 이야기들, 나아가 그런 의미가 모여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한 역사적 단면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²³⁾

이처럼 재질을 통해 단단함과 영원함을 보여주는 변상환 작가의 작품과 다르게 본인은 재질의 약함을 이용해 불안한 심리를 표현했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재질은 한지이다. 얇고 반투명한 재질의 한지는 연약하면서도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본인은 얇게 본뜨는 방식을 이용해 작품 **【불안전모】**와 **【영구불변】**, **【깊이와 얕음】**을 만들었다. 안전모를 한지로 얇게 본뜨는 작품 **【불안전모】**는 안전 불감증으로 가득한 현재 사회 분위기와 그로 인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전문제와 사고들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표현했다. 안전의 상징적 오브제인 안전모를 얇은 한지로 떠냄으로써 보호 장치로써 단단해야 할 안전모의 기능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전시장 중간에서 열은 빛을 내뿜는 **【영구불변】** 또한 한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터널 형태의 타원형으로 얇은 껍질처럼 만들어진 이 작품은 얇은 한지 사이로 빛이 투과되어 움직인다. 터널은 본래 이곳과 저곳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이야기하는데 작품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통로를 상징적으로

23)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변상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786&cid=59154&categoryId=59154>)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터널의 형상으로 연결된 타원형 형태의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폐쇄적 공간으로 우물에 고여 있는 물처럼 순환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과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깊이와 알음】은 새 형상 이외에도 새와 연결되어있는 한지로 만들어진 풍선 형태의 형상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 풍선을 한지로 본뜬 이 형상은 내면과 연결된 외면, 사회에 보여 지는 본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사회 속에서 불안정하게 부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본인은 그 모습을 풍선으로 형상화 했다. 공중에 부유하는 풍선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불안정한 상태이며, 본인의 모습을 상실한 껍질의 형상을 하고 있다. 풍선을 한지로 본뜬 이 작품의 안쪽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모습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속 빈 강정이라는 말과 닮아있다. 이러한 모습과 닮은 것으로 또한 사회가 있다. 사회적 외관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사회의 내부는 외관의 발전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사회의 내부와 외부의 차이는 결국 불안정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 개인은 함께 불안정해진다. 작품에서 개인의 외면과 내면의 괴리감은 한지로 만들어진 풍선의 형태와 연결된 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외부적 상황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작품분석



【작품 1】 검은 새가 지나간다

【작품 1】 검은 새가 지나간다

연도 : 2017-2018

크기 : 가변 설치

재료 : 단 채널 영상 1분 3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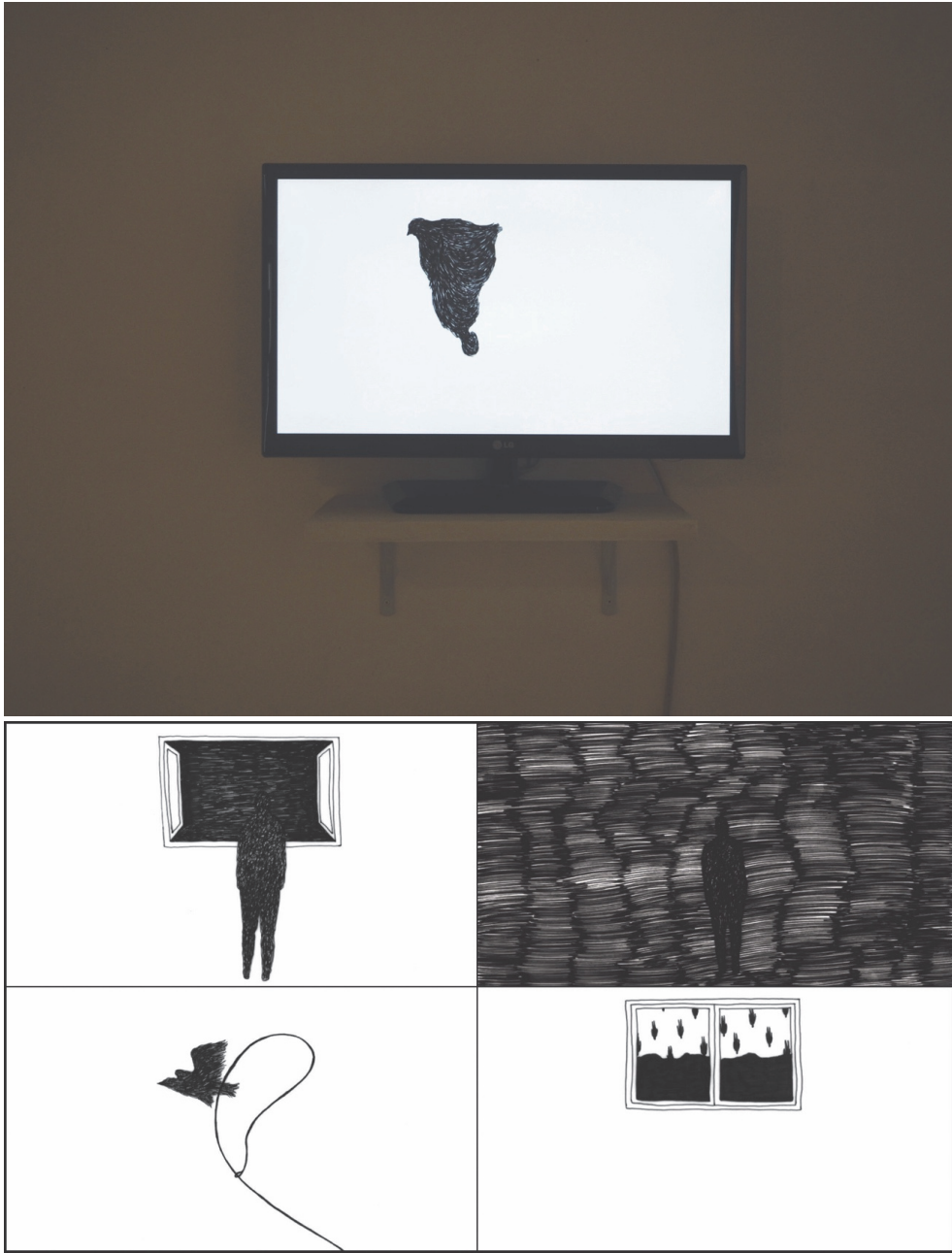
제작방법

1. 검은 펜으로 새 드로잉을 트레이싱지 위에 한 장 한 장 연결되게 그린다.
2. 드로잉들을 스캔한다.
3. 스캔한 드로잉을 가지고 영상으로 편집한다.
4.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편집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삶의 안정감을 잃고 무료하게 빙빙 돌아가는 일상 아래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과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떠오른 것은 바이러스였다. 불안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에 퍼져 이것이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현상에서 이 영상 작품을 시작하였다.

불안은 검은 새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원형의 구멍 사이로 검은 새가 움직인다. 원형의 구멍은 바이러스가 복제되어 증식 하듯 많아진다. 많아진 구멍 사이로 검은 새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구멍은 점점 화면을 가득 메우고 검은 새들의 움직임이 온전히 다 보인다. 검은 새들은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화면을 가득 메운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검은 새들은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불안한 상황을 나타낸다.



【작품 2】 Nightmare

【작품 2】 Nightmare

연도 : 2017-2018

크기 : 가변 설치

재료 : 단 채널 영상 1분 53초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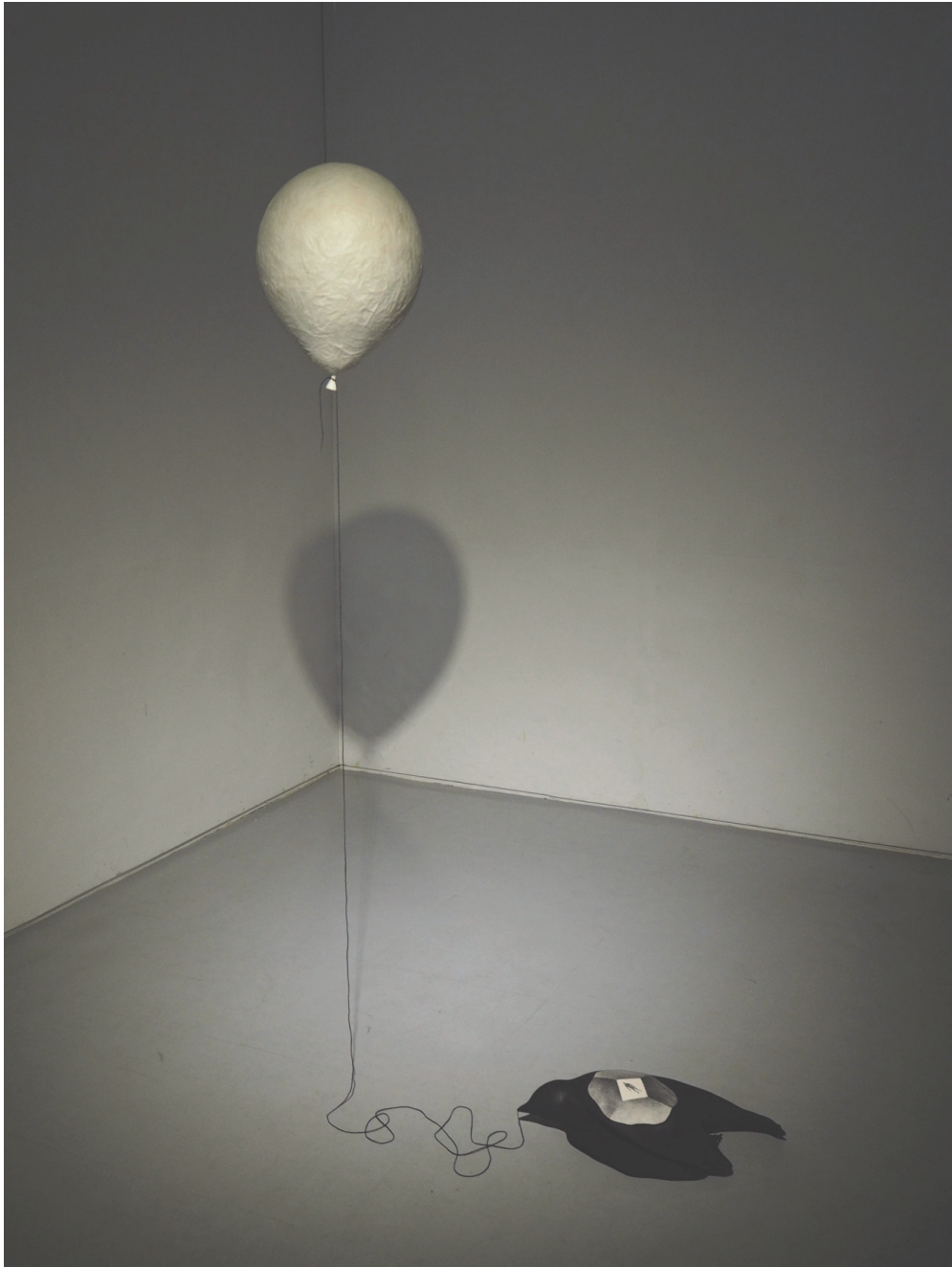
1. 스토리를 만든다.
2. 스토리를 토대로 검은 펜으로 트레싱지 위에 드로잉을 작업을 한다.
3. 드로잉 작업들을 스캔한다.
4. 스캔한 드로잉 작업들을 영상 프로그램으로 편집한다.
5. 사운드를 영상에 편집해 완성한다.

작품설명

본인의 꿈과 현실을 조합해 이야기로 재구성한 영상 작품이다. 이야기의 각각의 조각들은 경험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은 상징적 형태로 영상에 등장한다. 본인은 현실에서 겪은 자유에 대한 억압, 방황하는 상황을 꿈의 이미지로 변환해 표현했다.

열리는 창문 앞에 서있는 사람이 등장하며 영상이 시작된다. 창문은 점점 커져 화면을 가득 채운다. 화면이 바뀌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던져진 끈에 붙잡혀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누워있는 새는 숨을 쉬듯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었다가 새로 변하기를 반복한다. 새는 점점 부풀어 공기로 가득 찬다. 부풀어 오른 새는 공중으로 떠오른다. 공중으로 떠오른 새의

몸에서 사람 형상이 떨어져 나온다.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 화면이 바뀌고 영상은 시작할 때의 창문 이미지가 나오며 창문 밖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쌓여 창문은 검게 변한다.



【작품 3】 깊이와 얕음

【작품 3】 갯이와 얄음

연도 : 2018

크기 : 가변 설치

재료 : 한지, 석분 점토, 혼합 매체

제작방법

1. 바람을 넣은 풍선의 표면을 한지에 물을 묻혀 붙인다.
2. 한지로 덮은 풍선을 풀어놓은 가루 풀로 바른다.
3. 마르면 두 번 더 물 묻힌 한지를 붙이고 가루 풀 바르는 작업을 한다.
4. 마르면 본 뜬 풍선을 터트려 빼낸다.
5. 누워있는 새 형상을 석분 점토로 만든다.
6. 마르면 갈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7. 새 형상이 완성되면 그 위에 연필로 드로잉을 한다.
8. 설치 할 때 새 형상과 풍선 형상을 검은 끈으로 연결시킨다.

작품설명

본인의 내면과 외면의 차이, 사회와 본인의 연결성을 이야기한다. 평소 본인의 내면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해왔고 사회적으로 보여 지는 외면의 모습이 내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관찰해왔다. 이를 보여주는 작업으로 내면은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고 외면은 공중에 떠있는 풍선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죽은 듯 누워있는 모습의 새의 몸 위에 그려진 구멍 안쪽에는 작은 형태의 사람이 그려져 있다. 누워있는 새의 입을 통해

연결된 풍선은 한지로 만들어져 마치 껍질을 연상하게 한다. 공중에 띄워진 풍선 형상의 껍질은 본인이 사회 속에서 힘없이 방황하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검은 끈으로 연결되어 누워있는 새는 본인의 내면 안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면의 공간 안에도 자신도 파악하기 힘든 무의식 저편의 내면이 있음을 새의 표면에 그려진 드로잉을 통해 표현했다. 이를 통해 외면 또한 내면과 본질은 같으며 외부적 상황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다.



【작품 4】 가려진 모습

【작품 4】 가려진 모습

연도 : 2018

크기 : 156 x 40(cm)

재료 : 전신거울, 아크릴 페인트 마카

제작방법

1. 전신 거울의 거울을 제외한 곳을 모두 검은 아크릴로 칠한다.
2. 전신 거울에 검은 아크릴 페인트 마카를 사용하여 거울 표면을 드로잉으로 덮는다.
3. 드로잉을 반복해서 덮어 완성한다.

작품설명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사회적 상황에 무기력해지는 본인에게서 불안에 감춰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마치 본인의 시야를 무엇인가가 가득 가려놓은 느낌이였다. 이러한 느낌을 본인은 드로잉을 통해 나타내 보았다. 거울은 사람이 서있을 때 가득 보여 질 수 있는 크기의 전신 거울을 사용했다. 거울을 사용한 것은 불안을 마주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신 거울 위에 검은 아크릴 페인트 마카로 불규칙적으로 그려진 선들은 본인의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담았다. 전신 거울 앞에 서는 그 누구든 자신의 불안을 마주해볼 수 있다.



【작품 5】 기억노트_그렇게 쓰여진 것들

【작품 5】 기억노트_그렇게 쓰여진 것들

연도 : 2016-2018

크기 : 21.5 x 29.5(cm)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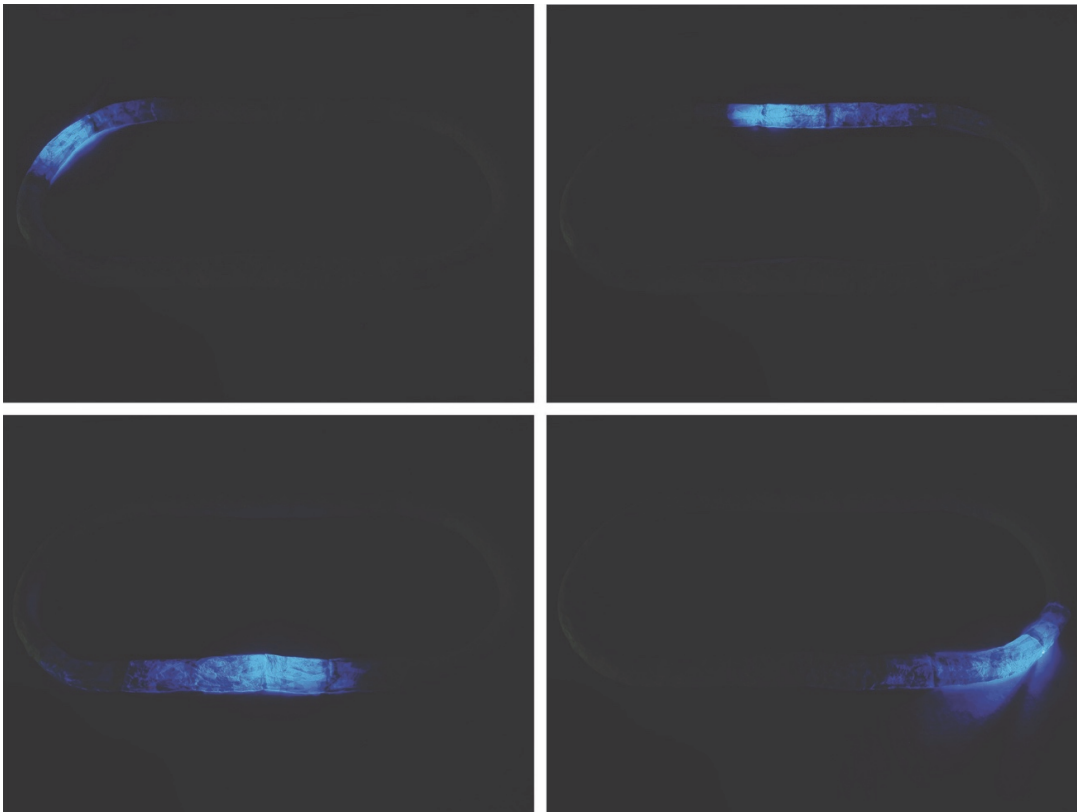
재료 : 종이에 프린트

제작방법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억, 꿈들을 기록한다.
2. 기록해온 글을 모은다.
3. 글들을 추려 다시 정리한다.
4. 글들을 인쇄한다.

작품설명

2016년부터 현재까지 틈틈이 일상에서의 경험이나 순간의 기억, 감정, 꿈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자유롭게 써왔다. 이렇게 쌓인 기록의 형태는 모아져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써왔던 글들을 통해 본인의 감정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글은 불안한 사회적 상황이 본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왔는지 적혀있다.



【작품 6】 영구불변

【작품 6】 영구불변

연도 : 2018

크기 : 가변 설치

재료 : 한지, 혼합매체

제작방법

1. 터널 형태로 타원형의 모양으로 본뜬 모양을 제작한다.
2. 제작한 터널 형태 위를 물 묻힌 한지로 덮는다.
3. 한지 위에 풀어놓은 가루 풀을 바른다.
4. 한지를 덮고 풀을 바르는 작업을 두 번 반복한다.
5. 마르면 연결시켜 터널 안에 빛이 돌아다니게 하는 장치를 넣는다.

작품설명

과거에도 사고와 범죄들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제천 화재 사고, 크레인 사고 등 안전에 대한 안일함은 결국 인재를 반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일함은 사회 전역에 만연하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작품은 위와 같이 과거를 답습하는 현재의 모습을 표현했다.

얇은 한지로 만들어진 터널 형태 사이로 푸른 불빛은 희미하게 시계반대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타원형의 터널은 과거와 현재가 같은 선상에 있으며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해서 도는 푸른빛은 불안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희망과 절망을 모두 보여주며 그 자체로 불안정함을

상징한다.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것은 현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과거를 역행하는 고여 있는 상황을 표현했다.



【작품 7】 불안전모

【작품 7】 불안전모

연도 : 2018

크기 : 23 x 28 x 16(cm)

재료 : 한지, 혼합매체

제작방법

1. 안전모 위에 물 묻힌 한지를 덮는다.
2. 한지 위에 풀어 놓은 가루 풀을 바른다.
3. 한지를 덮고 풀을 바르는 작업을 두 번 반복한다.
4. 마르면 안전모에서 떼어낸다.

작품설명

안전 불감증으로 가득한 현 사회를 살아가는 본인은 사회의 모습이 불안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기능을 상실한 안전모를 만들었다. 사회적으로 안전의 상징적 오브제인 안전모를 얇은 한지로 떠냄으로써 단단함을 잃고 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안전모를 제작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경험한 사회적 불안정과 개인의 불안한 심리와의 연결성에 대해 칼 구스타브 융의 집단무의식 이론과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고찰하였다. 사회 속에 살아가야 하는 개인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외부적 상황은 개인의 내면에 혼란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이것은 불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은 작품에 본인이 경험한 불안한 심리를 상징적 형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불안의 상징적 형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구멍과 새가 있다. 첫 번째로, 구멍 형상은 본인이 경험한 꿈의 기록을 통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은 꿈에 내재된 개인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구멍의 상징은 융의 상징 이론 중 자연적 상징을 통해 연구되었다. 두 번째로, 영상 작품과 새 형상 작품에서 보여 지는 새의 상징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현상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새의 상징적 이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유 할 수 있는 상징으로써 표현된다. 이것은 융의 상징 이론 중 문화적 상징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러한 불안의 상징적 표현은 본인이 사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본인이 겪은 불안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인은 본인의 작품을 접하는 관객들이 각자의 불안한 감정을 공감하고 위안 받기를 바라였다.

본 논문을 마치며 본인은 자신의 작품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작업 계기, 표현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본인이 느끼는 불안과 함께 현대인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여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식을 통해 작품을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사, 2009
- 이유경, 『원형과 신화』, 이끌리오, 2004
- 카를 융 외, 김양순 옮김, 『인간과 상징』, 동서문화사, 2016
- 쇠얀 키르케고르 지음, 임춘갑 옮김, 『불안의 개념』, 다산글방, 2007
- 박일호,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학술지 논문》

- 박수애, 송관재,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제11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5
- 이영하, 최광현, 「라캉의 상징 체계 해석방법론에 기초한 동물상징체계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5권 제4호, 한국 청소년시설환경 학회, 2017
- 김춘택, 「일상생활의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23권 제1호, 한국복지행정학회, 2013
- 이하경, 김희현, 「융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상징의 표상적 특성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 38권,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4

《학위 논문》

- 강정하, 「제임스 터렐의 작품에 나타난 ‘빛’의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2
- 조선미, 「평면조형에 나타난 게슈탈트 지각심리적 관점의 표현패턴에 관

한 연구:에셔(E.C.Escher)의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

《기타》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네이버 ‘헬로!아티스트’,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9154&categoryId=59154>

ABSTRACT

Study on symbolic expression of personal anxiety caused by social anxiety

- On the foundation of my work -

Chang, Yooji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port the results on an overall research on the works that I have done since 2017. I focused on 'the individual living in social uneasiness' and expressed symbolically the uneasy psychology of the individual through his works.

We belong to society and live in groups. And they are influenced by hav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society. As such, the external circumstances of society for individuals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our lives. Our society continues to be in a state of security, crime, accidents, and politically unstable, and I have become anxious and psychologically disturbed by this social situation.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psychology of the individuals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especially the anxiety. Anxiety is expressed through

repetition and space of circle, material expression form in work. The form of this work was studied through the symbolism of Carl Gustav Jung's symbolism through natural symbolism and cultural symbolism.

This paper is based on the works that were made in 2017 as follows.

In chapter 1, I introduces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 of my work.

In chapter 2, first, the unconscious influence of society is described through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of Carl Gustav Jung and the sociologist Zygmunt Bauman, and the background of the work is described by describing his anxiety through the concept of anxiety that Soren Kierkegaard talks about . Second, I showed the way of expressing works about anxiety through the hole type space, repetitive pattern, and material shown in my work.

In chapter 3, I summarized the study and work, and sought the direction of future work.